

USMCA 발효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CONTENTS

목 차

요 약

I. USMCA 체결 배경 및 경과

II. 주요 체결 내용 및 현지반응

- 2 1. 주요 체결내용
- 5 2. 현지반응

III.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 영향 분석

- 8 1. 총괄
- 9 2. 북미 3국의 산업별 영향

IV. 우리 수출·투자에 미치는 영향

- 21 1. 진출기업 설문조사
- 23 2. 주요 산업별 미치는 영향

V. 결론 및 진출전략

- 41 1. 결론
 - 43 2. 진출전략
-

요 약

◇ USMCA 2020년 7월 발효

- 북미 3국은 원산지·노동규정이 강화된 USMCA 발효 ('20.7월)
 - * (미국) USMCA법안 하원·상원 법안 통과, 트럼프 대통령 최종 서명 ('20.1.27)
 - * (멕시코) 상원 107:1로 통과 ('19.12.12) *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 국내 절차 완료 통보 ('20.4.3)



◇ 원산지규정 강화(62.5→75%), 노동규정 강화(노동가치비율 도입)

- (원산지규정)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역내가치비율(Regional Value Content) 75%,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의 70%는 북미지역 생산품 이어야 함을 규정
 - 신규 도입된 노동가치비율은 자동차부품 생산인력 임금이 부가급부를 제외한 시간당 16달러 이상이어야 무관세 혜택적용 가능
- (투자) 미국·캐나다간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는 3년 이내 철폐 예정, 미국·멕시코 간*은 유지되어 석유, 가스, 에너지와 유통부문에 적용
 - * 미국·멕시코간 ISDS는 청구자는 자국법원 해결을 우선적으로 시도하고, ISDS를 통한 문제제기가 가능한 위반의무는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수용으로만 제한
 - * NAFTA 기간 수행된 투자는 NAFTA 종료이후 3년 이내에 ISDS를 통해 중재 요청 가능
- (지재권) 현대의약, 기술 및 최신산업의 보호 반영
 - 기존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 특허 인정조항과 기존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와 관련한 3년의 임상정보 독점권 인정조항 삭제로 '에버그린' 전략을 통한 특허기간 연장 방지
 - * '에버그린' 전략은 제약사들이 신약 특허시기를 조정해 여러 유형의 개량특허를 받음으로써 독점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고 복제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전략

- **(노동)** 미국 민주당의 노동환경 개선 요구반영으로 노동기준 강화
 - 미국은 대사관에 최대 5명 정규직을 고용하여 강화된 노동조항을 상시 검토 및 모니터링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불만사항을 접수 가능토록 조치
 - 직장내 이민노동자 성차별 및 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규제하는 등 미국이 체결한 FTA 협정 중 가장 강력한 노동자 보호규정

◇ **USMCA→미국 전반적으로 긍정, 캐나다·멕시코 산업별로 차이**

- 미국 GDP에는 0.35%, 고용창출에는 0.12% 상승효과('17년 기준)
 - * 미국 GDP : 682억 달러 상승효과, 고용창출: 175,700명
 - *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 미국의 對캐나다와 對멕시코 수출이 각각 5.9%, 6.7% 상승 전망
 - * 캐나다부터의 수입 상승은 4.8%, 멕시코는 3.8%로 계산
- 산업별로 3국마다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영향 혼재
 - **(자동차)** 북미자동차산업 가치사슬 공고화, 멕시코→미국 공장이전 가능성
 - * (수혜) GM, 포드, 파아트크라이슬러 * (피해) 현대기아차, 볼보, BMW, 폭스바겐
 - **(철강)** 북미 철강관련 제조업 가치사슬 공고화
 - * (수혜) 미국 철강업계 * (피해) 여타 제조업 국가
 - **(기계)** 인건비가 저렴한 멕시코 지역 생산시설과 노동자→미국 이동
 - **(ICT)** 북미 디지털 온라인플랫폼 교류협력 강화
 - * (수혜) 아마존 등 미국 인터넷 플랫폼, 금융서비스업
 - **(문화·콘텐츠)** 미국 문화·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성장에 긍정적
 - * (수혜) 구글, 넷플렉스, 유튜브 페이스북 등 미국 콘텐츠 기업, 캐나다 문화 및 게임 산업 * (피해) 멕시코 문화콘텐츠산업
 - **(의약품)** 생물약품 특허독점 제한으로 바이오 복제약 산업에 긍정
 - * (수혜) 복제약 제조사 * (피해) 특허보유 대형제약사
 - **(항공우주)** 수출입에 대한 구체적 규칙 표준화로 효율성 제고, 국경 간 교역에서 초래되는 행정지연과 거래비용 감소
 - * (수혜) 미국 항공우주산업

◇[수출] USMCA(원산지노동)에 따른 영향→우리 수출기업별로 다양화

-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로 한국 자동차부품 수출 감소 예상
 - * 자동차 핵심부품은 '23년까지 순원가법 기준 75%의 역내가치비율을 충족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도록 역내생산비중 규정 강화
- **(철강)** 232조 철강규제로 인해 수출량이 제한 또는 대부분 철강 제품이 규제대상 품목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전망
- **(기계)** 중국제조 對美수출 품목은 부정적, 미국산 자동차부품 생산 증가에 따른 관련 부품제작 기계 수출기회는 확대 가능성
 - * 캐나다·멕시코로 수출하는 우리기업 영향은 미미, 제조업계의 생산비용 절감과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정밀부품 등 첨단기술 제품 수요증가 전망
- **(ICT)** 공공데이터 관련 정부정보 접근사용 확대,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조치 금지 등에 따라 데이터 관련 수출기업에게는 유리
- **(문화·콘텐츠)** 협정문에 관련 조항은 미국의 문화·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긍정적으로 수요증가→對美수출 증가 전망
 - * 다만, 한국 콘텐츠의 대미수출시, 협정문에 기반을 둔 강화된 저작권 보호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의약품)** 에버그린 전략을 통한 특허기간 연장방지로, 복제약품 시장에 긍정적이며, 이는 우리기업의 시장진출에 다소 우호적으로 예상
- **(항공우주)** 단기적 영향은 미미하나, 장기적으로 북미 3국간의 협업을 통한 신소재·기술개발 등으로 우리기업 대체 가능성도 제기
- **(에너지)** 우리기업은 에너지관련 주요 수출 품목은 캐나다, 멕시코보다는 중국, 일본 등과 경쟁,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

◇[투자] 북미3국간 역내가치사슬(RVC) 강화 전망

- (자동차) 북미시장 생산라인 확대를 위한 투자증가와 생산단가 상승으로 인한 투자 감소* 등 복합적인 전망 상존
 - * 새로운 규정과 최저임금 요건 강화로 북미자동차 산업 투자를 아시아, 유럽 등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존재
- (철강) 기존 부품생산 및 조달 계획 등에 변경사항이 있을 것으로 전망, 기업들은 포괄적인 투자진출 전략 검토가 필수
 - * 최소 시급요건(시간당 16달러) 충족, 결사의 자유 보장 등으로 멕시코 진출 우리기업의 인건비 상승 가능성
- (기계) 역내생산품목에 대한 관세혜택 증가로 직접투자를 통한 북미 현지생산 및 조달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 활발 예상
- (ICT) 미국 내 신규투자는 확대, 첨단기업 인수합병은 부정적
- (문화·콘텐츠) 미국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한국 콘텐츠 수요 증가→라이선싱이나 제작비 펀딩 등을 통한 투자 증가 예상
- (의약품) 우리기업의 북미시장진출에 큰 변화는 없지만, 미국내 의약품 생산시설 설립 후, 멕시코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긍정
- (항공우주) 미국의 신규개발 프로젝트 증가로 우리기업에도 관련 연구개발 협업 가능성도 예상
- (에너지) 에너지 교역 증가로 인한 신규 인프라시설 수요 증가는 우리기업의 투자기회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

◇ 북미시장 산업별 맞춤형 수출 및 현지화 전략 재수립

- (자동차) 북미역내 GVC→RVC에 따라 글로벌 기업과 공동협업 강화, M&A 등 투자진출 방법 다양화
 - 신세대 기술보유 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전기차·자율주행차 핵심 부품 등 차세대 자동차 부품 수주에 노력
 - 현지 진출기업은 노동규정 강화에 따른 운영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 현지채용 직원의 노동권 보장 및 개정노동법 준수 필요
- (철강) 지속적인 미국의 철강 수입 규제에 대비, 현지생산 및 조달 가능성을 고려하고 제휴 및 합작투자 등 장기적 솔루션 검토
 - 자동차 부품 생산비용 상승 감당이 불가능한 기업은 한국유턴을 통해 역내생산보다 미국 관세(2.5%)를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기계) 고효율 기계장비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비, 관련 제품과 부품개발로 양질의 제품을 제작하여 북미시장 진출 추진
- (ICT) 데이터의 현지화 금지와 같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무역 규범이 요구될 전망으로, 이에 대응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
-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및 복제약품 시장 적극 공략
 - 역내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라는 미국의 정부의 약가 인하노력 지속 예상으로, 복제약 시장의 성장세를 활용할 필요
 - 투자진출을 통한 북미시장 접근성 확대
 - * USMCA에서 가공공정기준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역내가공이 이루어지면 원산지 인정, 미국 내 생산기지 설립을 통해 멕시코로 무관세 진출 가능

- (항공우주)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 소싱, 협력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제품개발 및 엔진, 스마트 캐빈 등 신규 공동 R&D 추진
 - 절충교역 강화를 통한 수주물량 확대, 부품 설계기술 확보를 통한 국제공동개발 파트너 참여
 - 항공부품 수주 확대를 위한 선제적 설비투자 및 친환경, 경량제품 개발을 통한 시장선점 노력 요구
 - * 개발된 항공전자기술은 무인기 등에 우선 적용·실험하여 Track Record를 쌓아 제품신뢰도 제고와 현지 까다로운 규제, 절차 및 관련인증 획득 필수
- (에너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북미시장 공략
 - 우리나라 석유가스 기자재에 대해 쿼터제 등의 수입규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북미국가들의 수입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 고부가가치 제품은 기업의 수익성을 확대하고,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 시에도 그에 따른 영향 최소화 가능

I

USMCA 체결 배경 및 경과

-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 당시부터 NAFTA 재협상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임금 상승을 주요 공약 주장
 - 미국 주요 중서부 지역의 일자리가 값싼 멕시코 노동력으로 대체와 NAFTA로 인한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재협상의 이유로 언급
 - **철강 232조 수입 관세 부과**를 재협상을 위한 레버리지로 사용
 - *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최대 25% 관세 부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압박을 시도('18년 5월)
 - * 캐나다는 미국산 수입품 120억 달러에 보복 관세를 부과로 대응하였으나, 3국은 기존 NAFTA를 대체하는 USMCA 출범에 동의('18년 9월 30일)
- (경과) 멕시코를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3국 모두 의회 통과
 - (미국) 민주당과 USTR간 USMCA 법안 하원 및 상원 법안 통과, 트럼프 대통령 최종 서명('20년 1월 27일)
 - * (하원) 찬성 385표, 반대 41표로 통과('19년 12월 19일)
 - * (상원) 찬성 89표, 반대 10표로 상원 표결 통과('20년 1월 16일)
 -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 USMCA 국내절차 승인통보('20년 4월 3일)
 - (멕시코) 북미 3개국 중 첫 번째로 USMCA비준 완료
 - 멕시코 대통령 임석 하, 북미 3국 대표단은 멕시코시티에서 미국 민주당의 견해가 반영된 노동·환경 규범, 의약품 등에 대한 USMCA 개정의정서(Protocol of Amendments)에 서명 ('19.12.10)
 - 멕시코 상원*은 USMCA법안을 107:1로 통과, 비준절차 완료('19.12.12)
 - * 멕시코 헌법 제76조에 따르면 행정부의 대외정책 평가 및 국제조약의 비준은 상원이 독점으로 행사할 권한을 가짐

1) 민주당은 USMCA 협정문에서 노동 및 지재권 등의 조항에 반대, USTR과 법안 수정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협상, '19년 말 반년 만에 합의에 도달함. 3국 비준 완료시 90일내에 USMCA는 발효, NAFTA는 26년 만에 효력 상실됨.

II

주요 체결 내용 및 현지반응

1

주요 체결 내용

가. 원산지 규정

- 자동차 원산지 규정(ROO: Rules-of-Origin)에 대해 3국은 역내가치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 75%에 동의했으며, 자동차 생산용 철강 및 알루미늄의 70%는 북미지역 생산품이어야 함을 규정
- 신규 도입된 노동가치비율(LVC)은 자동차부품 생산인력의 임금이 부가급부를 제외한 시간당 16달러 이상이어야 무관세 혜택적용 가능
 - * 임금수준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 시간 당 16달러가 유지
- 자동차부품을 핵심부품(core parts), 주요부품(principle parts), 상호보완부품(complementary parts)으로 나누어 각 범주에 대한 의무규정을 정의

<표 II-1> USMCA 원산지 규정

	핵심부품	주요부품	상호보완가능부품
1년차	66.0%	62.5%	62.0%
2년차	69.0%	65.0%	63.0%
3년차	72.0%	67.5%	64.0%
4년차 이후	75.0%	70.0%	65.0%

자료원 : USITC(2019.4월)

- 원산지 규정을 미충족시 수입산 제품은 MFN관세율 2.5%를 부과
- 자동차부품은 캐나다 324억 달러, 멕시코 1,080억 달러까지 232조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초과 시 관세부과

나. 투자

- USMCA '투자' 규정에 의거, 미국·캐나다간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s)는 3년이내 철폐 예정이지만 미국·멕시코간*에는 유지되어 석유, 가스, 에너지와 유통에서 영향력 행사
- * 미국·멕시코 사이 투자분쟁에 대한 ISDS는 청구자는 자국 내 법원에서 해결시도를

우선적으로 시도하고, ISDS를 통한 문제 제기가 가능한 위반의무는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수용으로만 제한

- NAFTA 기간동안 이루어진 투자(legacy investment)에 대해서는 NAFTA 종료 이후 3년 이내에 ISDS를 통해 중재 요청 가능

다. 디지털 무역

- 기본적으로 TPP와 내용이 유사하지만 일부 규정이 추가
 - 소프트웨어, e-북, 동영상, 음악 및 게임 등 디지털 물품(digital products)에 대한 일반관세 및 차별적인 관세 부과 금지
 -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민사적 책임 회피
 - 정부는 공공데이터와 정부 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기업으로부터의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 요구 금지
- TPP, USMCA 모두 자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적용 대상자에게 그 어떠한 컴퓨팅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TPP는 예외 조항이 존재하지만 USMCA는 아무런 예외를 설정하지 않음.

라. 지재권

- 美 정부는 기체결 지재권은 현대의약, 기술 및 디지털경제와 같은 최신 산업 보호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 NAFTA 개정 추진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저작물, 실연(연주) 및 음반이 발행된 이후 75년간의 보호 기간을 규정
 - (디지털 저작물 강화) 기술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조항을 통해 저작물의 저작권을 강력하게 보호
 - (신약 특허) 새로운 용도, 자료, 허가 및 특허 연계 제도, 등록 지연으로 특허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 등 신약 특허권에 대한 보호조치 가동
 - 신약 복제 10년 제한 규정 철폐

- (지리적 표시 제한)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등록에 대한 취소 절차 마련 및 표시 남용으로 과도한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규정

마. 환율

- ① 3국이 경쟁적 평가절하 및 환율 조작을 지양 ②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매달 공개 ③ 외환시장 개입 시에는 즉시 협정국에 통보할 것을 규정
- 협정국들의 불공정한 이익 및 환율 조작 방지를 위해 IMF 협정 규정 적용
 - 경제 기초여건을 개선하여 거시 경제 지표와 환율 안정성 도모를 추구

바. 노동

- 미국 민주당의 노동환경 개선 요구에 따른 3국간 추가 협상('19년 12월)으로 노동기준이 NAFTA보다 강화
 - 미국은 대사관에 최대 5명 정규직을 고용하여 강화된 노동조항을 상시 검토 및 모니터링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불만사항을 접수 가능토록 조치
- 직장 내 이민노동자 성차별 및 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규제하며, 미국이 체결한 FTA 협정 중 가장 강력한 노동자 보호법이 추진

사. 기타

- 멕시코·캐나다가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저렴한 중국산 제품이 협정국을 통해 미국 우회수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비시장국과의 FTA'라는 조항을 마련
- 비시장국가와 FTA 체결 희망 시 협상 개시 3개월 전까지 협상국들에게 의사를 통보해야 하는 의무규정 포함
 - 당사국은 협정국에게 최대한 협조하여 협상목적과 협정문을 최소 서명 30일 전까지 전달
 - * 비시장국가와 FTA를 발효 시, 당사국이 6개월 내로 USMCA를 종료하고 나머지 두 당사국은 양자협정으로 대체되는 것을 허용

2

현지반응

가. 미국 내 반응

- 미국 내 기업 및 산업체는 USMCA 발효를 긍정적으로 평가
 - NAFTA의 효력이 닿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었던 많은 미국 기업이 이번 협정을 통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
 - 미국 상공회의소는 USMCA는 미국 경제 불확실성 해소로 평가
- (자동차) 이번 협정을 통해 해외 자동차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GM, Ford, Fiat Chrysler 등)
- (농산물) 美 농축업계는 멕시코 보복 관세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향후 사업 확장까지 고려할 수준으로 큰 수혜를 전망
- (의약) USMCA에 대한 평가가 양분화
 - 신약 개발 성공에 대한 특허를 10년간만 보호받을 수 있어, 신약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감소(J&J)
 - 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개발업체인 바이오시밀러 기업은 협정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나. 캐나다 내 반응

- 캐나다 외교부는 NAFTA를 대체하는 새로운 USMCA가 캐나다의 경제성장과 사업기회,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
 - USMCA가 모든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캐나다 경제 성장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캐나다 정부는 USMCA협정문의 분쟁해결 패널구성 무력화조항 삭제와 바이오의약품 특허보호 관련 조항 삭제 등을 환영

- 특히, 노동 및 환경 관련 조항의 강화가 야당의 비준 동의를 얻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USMCA 발효로 캐나다 낙농업 시장의 3.5%가 개방될 예정으로, 국내 낙농업계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
 - 현지 낙농업 종사자들은 USMCA가 캐나다 낙농산업에 종사자 수 감소, 가격 하락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
 - 현지 전문가는 앞으로 5년 이내에 미국, 유럽 등 타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유제품이 증가하고 경쟁 심화로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
- USMCA 제 32장 10조 예외 및 일반조항으로 캐나다와 비시장 국가의 양자 FTA 추진에 어려움 예상²⁾
 - 3개 회원국 중 한 국가가 비시장경제(Non-market country) 국가와 교역협정을 추진할 경우, 타 당사국에 협상 개시 3개월 이전에 전체 내용 고지의무 포함
 - * 현지 전문가들은 이 신규 조항이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조치라고 풀이하고 있기도 하나, 실제 캐나다와 중국 간의 FTA가 추진될 시기에 미국 정권이 교체될 경우 변동사항이 생길 것으로 전망

다. 멕시코 내 반응

- 멕시코 정부, USMCA 발효에 대한 기대감 표현
 -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美 상원 비준 직후 USMCA가 멕시코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만족감을 보임
 - 헤수스 세아데(Jesús Seade) 멕시코 외교부 북미담당 차관은 '1년간의 긴 협상이 완결되었으며, 특히 멕시코에 도움이 되는 협상'이라고 언급하며 美 상원의 USMCA 비준을 축하

2) 이 조항에 대해 중국은 USMCA에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함. USMCA의 관련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틀을 벗어나 '시장경제'와 '비(非)시장경제'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다고 비판함

- 라틴아메리카의회 및 제조업협회 등 통상여건 개선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
 - 바네사 루비오(Vanessa Rubio) 라틴아메리카의회 상원 대표는 멕시코가 불확실성에서 벗어난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협정의 복잡함과 실현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 멕시코제조업협회(COCAMIN; Confederación de Cámaras Industriales)는 USMCA의 타결이 북미 3개국 투자자들에게 대해 믿음과 확실성을 줄 것이라고 평가
 - 포브스(Forbes)는 북미 3국 간 생산 밸류체인이 통합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역내 많은 신규일자리 창출을 기대
- 강화된 노동규정에 대비하여 멕시코 기업들 내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일부 고용주는 근로자 복지를 개선하는 등의 움직임 보이기도 함
 - 멕시코는 노동자 임금을 인상하고 독립적인 노동조합 허용 및 관련 조항 준수 여부를 감독할 노동 감시기구도 만들어야 함

III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 영향분석

1

총괄

- USITC는 USMCA가 미국 GDP와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미국 GDP 0.35%, 고용창출 0.12% 상승효과('17년 기준)
 - * GDP : 682억 달러 상승효과, 고용창출: 175,700명
 - *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 3국 간 무역 활성화를 예측, 미국의 對캐나다와 對멕시코 수출이 각각 5.9%, 6.7% 상승할 것으로 전망
 - * 캐나다부터의 수입은 4.8%, 멕시코는 3.8% 증가로 추정

<표 III-1> 산업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분야	주요내용	수출/투자에 미치는 영향	진출전략
자동차	▶역내가치비율강화(62.5%→75%) ▶노동가치비율 제도 도입 * 시급 16달러이상 지역 생산비중 의무	▶북미 역외국가 자동차 산업에 다소 부정적	▶차세대자동차 RVC편입 ▶공동연구 M&A투자진출
철강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북미산 70% 규정	▶우리수출의 직접적 영향은 미미 *(▲)미국 철강/알루미늄 업계 *(▼)여타 제조업 국가	▶수입제 면제가능품목 발굴 ▶현지제휴/합작투자 검토
기계	▶생산 원산지, 노동규정 변경 * 북미산 부품비중 75%, 자동차부품 40% 시급 16달러이상 생산	▶멕시코 생산시설, 노동자→미국 ▶중국제조 대미수출품목 부정적, 첨단기술제품 수요증가	▶고효율 기계장비 제품제작 ▶M&A 등 진출방법 모색
ICT	▶국경간 자유로운 정보이전보장 ▶데이터 현지화/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데이터관련 수출기업 유리 *(▲)아마존 등 미국 인터넷플랫폼, 금융서비스업	▶디지털무역 규범화 협상대비 ▶국내제도, 규정 점검
문화 콘텐츠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및 기타 차별조치 금지 ▶저작물, 공연, 음반 저작권 보호 기간 70→75년으로 연장	▶미국 문화/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긍정적→대미수출 증가 *(▲)구글, 유튜브 등 미국콘텐츠 기업, 캐나다 문화/게임산업 *(▼)멕시코 문화콘텐츠산업	▶다양한 콘텐츠 미국내 수요증가→대미수출활용
의약품	▶생물의약품 정보보호기간 연장 삭제 * 기존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와 관련한 3년의 임상정보 독점권 인정 조항 삭제	▶복제약품 생산 우리기업에 유리 ▶바이오복제약 진입장벽완화 *(▲)복제약 제조기업 *(▼)특허보유 대형제약기업	▶미국생산기지→역내진출 ▶미국 법인설립 추진
항공 우주	▶3국 상호시장 접근성, 효율성 향상 ▶개인정보, 사이버보안 협력	▶북미3국 협업 통한 기술개발 →우리기업을 대체할 가능성↑ *(▲)미국 항공우주산업	▶글로벌 기업과 공동R&D ▶친환경 경량제품개발
에너지	▶3국간 원유, 정유, 에너지 집약적인 제조 제품 무관세 조치 ▶미국의 對캐나다/對멕시코 LNG 수출시 자동 승인	▶우리기업은 중국, 일본과 경쟁, 해당영향은 미미할 전망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미국 수입규제 사전대비

2 북미 3국의 산업별 영향

가. 자동차

[미국]

□ 원산지 규정 강화로 완성차 생산 비용 및 소비자 가격 증가 예상

- NAFTA 자동차 역내 가치 생산 비중은 62.5%를 USMCA 하에서는 최대 7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예정
- 미국 내 판매되는 자동차 중 약 47종은 USMC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USMCA 원산지 규정 미충족 시, 승용차는 관세 2.5%, 픽업트럭/밴은 최대 25%의 수입 관세 부과*
 - * 자동차 1대당 평균 생산 비용이 635 달러로 증가해 북미 자동차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³⁾

□ 차종 효율화 및 생산시설·부품 소싱의 현지화 추세가 강화될 전망

- USMCA 발효에 대비하여 북미 차량 제조사는 생산비용 절감 및 소싱 현지화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 중
 - 미국자동차산업연구소(CAR)의 조사에 따르면 USMC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류된 47개 차종 중 12종은 이미 제조사에 의해 미국 내 생산/판매가 중단
 - 미국 자동차기업 임원 1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61%가 조립공장 근처에 있는 납품 업체를 선호, 78%가 북미 공급업체 또는 대체 공급업체를 찾는 것이 단기적인 우선순위라고 답변⁴⁾

3) US-Consumer Economy Impact of US Automotive Trade Policies, 2019.2, Center of Automotive Research.

4) LevaData Survey, 2018.12

[캐나다]

- 자동차산업은 캐나다 대표 산업으로 현지기업들의 부담 가중 예상
 - 역내부가가치 기준, 노동부가가치 기준 강화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전망
 - 자동차 제조에서 사용되는 철강, 알루미늄의 70%이상을 북미산 사용 요건으로 철강 기업 등도 연쇄적 영향 예상
 - 캐나다 자동차 기업들은 강화된 역내부가가치기준, 원재료 구매조건 충족을 위해 기존 해외 공급처를 일부 축소하고 현지조달 대체 전망

- 캐나다 소재 일본 자동차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 초래 전망
 - 캐나다 소재 일본 도요타, 혼다자동차 생산 공장은 일본부품 수입으로 역내부가가치기준 충족 관련 부품수입에 부정적인 영향

- 캐나다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 of Canada)는 USMCA 원산지 규정 강화로 자동차 제조 및 판매비용 상승 예상
 -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캐나다산 자동차·자동차 부품 무관세 수출 쿼터* 적용으로, 캐나다와 미국과의 자동차 무역 활동 범위를 예측 가능할 수 있다고 분석
 - * 자동차 : 260만대, 자동차 부품 : 324억 달러 규모
 - 멕시코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의 임금 강화로 멕시코 소재 생산 공장들이 미국과 캐나다로 다시 이전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

- 캐나다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에 무관세 조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
 - USMCA로 인해 상승한 자동차 가격이 북미 자동차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가격 경쟁력을 위해 자동차 제조 기업들의 아시아, 유럽 지역으로 생산 공장 이전 가능성도 존재

[멕시코]

□ 자동차 업계, 원산지규정 및 노동규정 강화에 대한 우려 표현

- 멕시코자동차협회는 역내부품 조달비율 인상은 큰 타격이 없지만, 노동가치비율은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노동가치비율요건 강화*로 멕시코 내 생산기지가 미국 이전 우려 존재
- * 역내노동가치비율 요건: 시간당 최소 16달러를 받는 노동자가 자동차의 40~45%를 생산하도록 규정(승용차의 경우 40% / 재료 및 제조비 25%, 기술비 10%, 조립비 5%, 경량 또는 중량트럭의 경우 45% / 재료 및 제조비 30%, 기술비 10%, 조립비 5%)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업체는 수입 축소 대신 로컬 소싱으로 공급선 다각화

- USMCA에 대비하여 다수의 완성차 및 Tier1 바이어들은 '18년 말부터 로컬 공급선으로 변경하고 있는 상황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역내가치 생산비중 단계적 상향(62.5%→75%) 및 철강·알루미늄 역내구매비율 70% 충족을 위해 수입을 축소하고 거래선을 현지생산자로 변경 가능성
- 국내 제조업 다각화 효과 극대화 및 자동차산업 경쟁력 유지 위한 생산비용 감소노력 및 설비 투자는 필수적
 - 현지 컨설팅사 및 업계전문가들은 RVC, LVC 요건 충족을 위해 완성차 생산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최종 소비가격 상승을 피하기 위해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자동화 등의 설비투자가 필수적임을 강조

□ 멕시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美 MFN 인상조치 및 자동차 232조 조치를 동시에 발동하는 것은 어려울 것

- (Annex 2-C) 미국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MFN 관세율(現 양허세율 2.5%)을 상향시킬 경우, USMCA 원산지규정(RVC, LVC)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멕시코 자동차 부품에 대해 기존 NAFTA 원산지 기준 충족을 전제로 연간 160대 까지 최대 2.5% 관세 부과
- (Side Letter) 미국 정부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232조 조치를 취할 경우, 멕시코 및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 연간 260만 대(멕시코산 자동차 부품의 경우 1,080억 달러까지) 수입쿼터 부과(USMCA 원산지규정 충족하더라도 260만대 초과분에 대해 고율 추가관세 부과)
- Annex 2-C 및 Side Letter는 별건으로 해석해야 하며, Side Letter의 경우 서한 교환형식으로 발효

나. 철강

- USMCA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북미산 철강 사용 증가와 장기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상반된 주장 존재
- 미국 철강 제조 업계는 USMCA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주장
 - (AK Steel) USMCA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북미산 철강을 사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 (Fitch Rating) USMCA 준수 비용이 미 자동차 제조사들이 북미 철강 공급업체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
 - USMCA가 철강 업계에 장기적 이득을 준다고 할 수 없다고 언급
 - 국제적인 철강 과잉 공급과 미미한 수요 증가에 따른 철강 가격 하락으로 USMCA가 미국 철강기업의 최우선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
- 미국 의회예산국(CBO), 원산지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역내 생산·

대체 불가품목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할 것이라 분석

- 향후 10년간 약 30억 달러의 추가 관세 수입 예상

다. 기계

[미국]

□ 원산지 및 노동 규정 변경*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멕시코 지역의 생산시설 및 노동자를 **미국으로 유인**하는 효과 예상

- 현지 생산비율이 높아지면서 인건비 상승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생산비용 증가 불가피

- 자동화기기, 3D 프린터 등 고효율 기계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 * 원산지 규정 : 자동차 생산 시 북미산 부품 사용비중 75%가 충족되어야 무관세 혜택 가능. ('20년 말~'23년 순차적용, 기존 NAFTA 규정 62.5%)
- * 노동 규정 : 자동차 한 대 구성품의 40%는 시간당 임금이 16달러 이상인 곳에서 생산되어야 함. ('20년 말~'23년 순차적용)

- 미국에서 캐나다로 수출하는 농산물 등급 기준*에 대한 차별철폐로 농업 및 낙농업계 제품 생산 확대로 관련 **농기계 수요 증가** 예상

- * 캐나다의 수입 농산물 등급 기준을 철폐하여 미국산 수입 밀도 캐나다산 밀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합의(멕시코 제외)
- * 캐나다 낙농 시장 3.6% 개방(NAFTA 규정 0%)으로 미국산 우유, 버터, 치즈 등의 캐나다 시장 진입이 가능해짐(멕시코 제외)

[캐나다]

□ 3국 모두 기계 및 부품(HS Code 84류)에 대해 현재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USMCA 발효로 관세혜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

□ USMCA 발효 후 무역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미국과의 기계류 교역이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

- 원산지 규정 강화로 일부 멕시코 진출기업의 생산 공장 이전 등 리쇼어링으로 캐나다의 對멕시코 기계류 수출 감소 예상
 - * 캐나다는 미국의 5번째 기계류 수출국으로 미국은 캐나다로부터 US\$ 215억 3,386만 규모의 기계 및 부품을 수입('19년 11월 기준)
 - * 캐나다는 멕시코의 10번째 기계류 수출국으로 '19년 10월 기준 US\$ 5억 8,498만을 수출했으며, 이는 2017년과 2018년에 비해 약 30% 가량 하락한 수준
- 기계류의 원자재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제재가 USMCA와 함께 철회되면서 캐나다 철강 내수가격은 상승하지 않을 전망
 - 미국은 USMCA 회원국에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 면제 확정
 - 미국의 수입제재 철회로 캐나다가 부과한 세이프가드도 미국과 멕시코 등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제외 대상국으로 분류, 기존대로 철강 및 알루미늄 교역이 가능
 - 기계류의 원자재(철강, 알루미늄) 가격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

[멕시코]

- 현지 생산기지 투자진출 증가 전망에 따라 USMCA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
 - 멕시코 주요산업인 자동차산업에 대한 최첨단, 자동화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원산지규정에 대응하여 고용 증가 및 임금상승보다는 가격경쟁력 유지 및 생산비용절감을 위한 첨단기술의 설비투자 수요가 늘어날 전망
 - '20년까지 기계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며, USMCA 발효는 단기적으로는 관련 산업 성장이 정체될 수도 있음을 언급(멕시코 기계유통협회)

라. 디지털무역

- 디지털무역 증가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 극복

- E-Book, 비디오, 음악, 소프트웨어, 게임 등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차별적 조치 금지 조항으로 미국 디지털무역 관련 기업들의 캐나다, 멕시코에서 시장 지배가 가속화 전망
- 미국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혁신제품과 서비스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인 만큼 미국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될 전망

□ 데이터 현지화 조치 금지

- 미국이 체결한 협정 최초로 데이터의 현지 저장 요건 부과 금지 규정이 신설, 적용대상에 '금융서비스'가 포함되어 미국이 강점이 있는 금융 산업에도 캐나다, 멕시코 시장에서 강제 예상
- * 중국, 독일 등에 비해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미국은 ICT 분야에서 경쟁우위 유지를 위해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와 데이터 지역화 금지를 디지털 통상 국제 표준으로 추진할 의지를 표명한 만큼 북미시장이 그 시험무대가 될 전망

마. 문화·콘텐츠

[미국]

- 전자 형태로 유통되는 디지털 제품(e-book, 비디오, 음악, 소프트웨어, 게임 등)에 대한 관세부과 및 기타 차별 조치 금지
 - 미국에는 구글, Netflix, 유튜브, 페이스북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다수 존재
 - USMCA는 해당 분야 거래와 투자를 촉진시켜 미국 문화·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 예측
- 저작물, 공연 및 음반 저작권 보호기간을 75년(혹은 저작자 생존기간 + 70년)으로 연장,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강화
 - 스트리밍으로 이용 가능한 음악 재생 서비스, 비디오 등 영상 재생

서비스 분야뿐 아니라 SNS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사진 등 이미지 저작권까지 전반적인 콘텐츠에 대한 보호 규제가 마련

- 기존의 NAFTA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로, 문화·콘텐츠 산업 내에서 저작권 행사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미국 기업들에 호의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

[캐나다]

□ USMCA 제32장을 통해 캐나다의 불어권 영화, 음악, 라디오, 방송 등 문화산업에 대한 규정 이행은 기존대로 유지될 전망

- 캐나다는 NAFTA 재협상 발효 직후부터 줄곧 캐나다 문화산업 보호에 대한 예외조항 유지를 주장

*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특수성으로 '60년대부터 방송 및 문화산업에서 프랑스계 특성을 보존하기 위한 규제를 시행

- 캐나다에 유튜브, 넷플릭스 등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어, 동 규정의 효율성은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도 존재

□ 영화도촬, 불법 복제품 등에 대한 형사 절차 및 처벌 강화, 디지털 콘텐츠 보호, 실제공연(Song performances)에 75년 저작권 보장 등이 합의돼 캐나다 문화와 게임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

- 캐나다는 모바일 앱, 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 개발과 제작, 유통에 특화, 가상현실(VR) 콘텐츠 개발 투자도 확대하는 추세

□ 콘텐츠 분야 지재권 보호강화는 캐나다의 외국기업 유치와 전문 인력 육성 등 디지털 콘텐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기

[멕시코]

□ 미국의 문화콘텐츠 및 저작물 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하나,

멕시코 내 관련법 발전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USMCA 제19장(디지털무역)에 의하면 전자텍스트, 비디오, 이미지, 소리 또는 디지털방식 암호화로 제작된 상업전자물에 대해 관세부과가 면제
- 상대적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이 미성숙한 멕시코는 타회원국 저작물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해 자국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
 - 멕시코영화배우협회(Asociación Nacional De Actores)는 자국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에 불리한 USMCA의 기준을 거부하는 성명서 멕시코 상원 제출(19년 6월)
 - * USMCA의 멕시코 자국영화 상영쿼터(전체 상영영화의 10%가 멕시코 영화일 것)는 종전 NAFTA에서의 조건(전체 상영영화의 30%가 멕시코 영화일 것)보다 더욱 불리한 수준
- 멕시코의 문화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등 기존에 미약했던 산업 보호체계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

바. 의약품

약가 상승에 기여 할 수 있는 의약품 특허 존속 기간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역내 소비자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

- 기존 USMCA 합의안은 생물의약품에 대한 최소 10년 독점권 보장 규정을 포함했으나 수정안에서는 삭제
 - * 캐나다는 8년의 독점권을 인정, 멕시코는 생물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독점권 규정이 없어 일반의약품과 마찬가지로 5년의 독점권 유지
 - * 미국은 현재 12년의 독점권을 인정하나 민주당은 USMCA의 10년 독점권 규정이 향후 미국의 바이오의약품 독점권 법 개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 기존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에 특허를 인정하는 조항과 기존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와 관련한 3년의 임상정보 독점권 인정조항 삭제로 ‘에버그린’ 전략을 통한 **특허기간 연장 방지**
 - * ‘에버그린’ 전략은 제약사들이 신약 특허시기를 조정해 여러 유형의 개량특허를 받음으로써 독점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고 복제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전략

지재권 조항(Chapter 8)을 제외한 USMCA 조항(Chapter 12, 29)이 미국

의약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NAFTA 발효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의약품의 95% 이상이 이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
- USMCA에서 원산지결정을 위한 가공공정기준 조항이 추가되었으나 한미FTA 등 미국이 체결한 다른 무역협정과 동일한 내용
 - * 화학반응, 정제 등의 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조항이 추가됨.
- 미국 화학/의약품 업계는 USMCA 원산지 결정기준 추가조항이 다른 무역협정들과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의 역내가치비율 (Regional Value Content) 방식의 대체 옵션을 제시를 이점으로 평가

사. 항공우주

□ 미국 항공우주 산업 글로벌 경쟁력 향상

-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의 항공우주산업 주요 교역국가로, 이들 국가와의 교역을 확대하여 역내 항공우주 산업 지속적 성장 전망
 - * 캐나다 : 미국의 항공우주 4위 수출국(9.9십억달러), 2위 수입국(9.8십억달러)('18)
 - * 멕시코 : 미국의 항공우주 9위 수출국(4.7십억달러), 6위 수입국(3.1십억달러)('18)

□ 디지털 통상을 통한 교역 현대화

- 디지털시스템을 통한 제품 추적가능성(Traceability) 향상
 - 필요 품목, 필요시기, 공급가능 서플라이어 등의 추적·확인이 가능하여 밸류 체인의 효율성 제고
- 개인정보 및 사이버보안에 관한 협력 촉진

□ 상호 시장 접근성 및 효율성 향상

- 관세부과 제한으로 국가간 재화의 흐름이 자유로운 시장 형성

- 수출입에 대한 구체적 규칙을 표준화하여 효율성 제고. 국경 간 교역에서 일어나는 행정지연과 거래비용 감소 전망

아. 에너지

□ 북미 에너지 시장의 통합 및 상호의존성 증가 기대

- 3국간 원유, 정유, 에너지 집약적인 제조제품에 대한 무관세 조치로 자유무역 활성화, 북미 에너지시장 통합, 상호의존성 향상
- 상호연결된 시장 환경에서 에너지 공급 안정성 및 탄력성 증가
- 미국의 캐나다 오일가스 산업 직접투자 규모는 업스트림 27억 달러, 미드스트림 55억 달러(17년 기준)
 - USMCA에 따른 투자규제 완화로 상호투자가 더욱 강화될 전망

□ 정제산업, 에너지집약 제조업 등의 활성화 및 고용 성장

- 수압파쇄법과 수평시추법의 개발로 가능했던 셰일혁명에 미국의 오일가스 생산량 증대로 이어진 상황*
 - * 2019년 기준 오일가스 산업 종사인구는 약 1,030만 명
- 캐나다, 멕시코산 원유 수입으로 정제산업의 활성화와 고용 안정성 향상 기대와 플라스틱, 석유화학제품, 비료 등 에너지집약 제조업 활성화 및 고용 성장 전망

□ 에너지안보 강화

- 미국 에너지정보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석유 생산량이 소비량을 곧 추월할 것으로 전망
- 북미 지역내 자유롭고 안전한 에너지 교역으로 인해 공급 차질 가능성이 낮으며, 다른 에너지 공급국가에 대한 의존도 하락

□ 규제 프로세스 간소화

- 미국이 對캐나다 및 멕시코 LNG 수출시 자동 승인으로 프로세스 간소화한 반면, FTA 미체결국으로 수출시에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요구되어 프로세스 지연 가능

□ 소비자 혜택

- 통합된 에너지 시장의 효율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 하락
-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의 에너지 소비금액 감소 혜택 및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공공요금 혜택 기대

IV

우리 수출·투자에 미치는 영향

1

진출기업 설문조사

□ 조사현황

- USMCA 체결 3국(미국, 캐나다, 멕시코)진출 기업에 대해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등 주요 산업별 영향 분석을 위해 추진

설문조사 개요

-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진출기업 32개사를 대상으로 USMCA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 (조사국가) 미국(뉴욕, 디트로이트,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실리콘밸리, 워싱턴, 달라스), 캐나다(토론토), 멕시코(멕시코시티) 진출 32개사
 - * (조사항목) 기업정보(진출지역, 법인형태, 기업형태, 투자형태, 산업분류), 진출동기, USMCA 발효에 따른 영향, 수출/판매국가 등이 포함
 - * (대상기업)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의약품, 항공우주, ICT, 문화콘텐츠, 에너지

□ 분석결과

- (진출동기) 북미 3국에 대한 진출은 현지 내수시장, 북미3국 역내진출과 해외고객요구 부응이 중요한 목적으로 조사
 - (공통) 현지 내수시장(26.1%), 북미 3국 역내 진출(24.6%), 해외고객 요구부응(17.4%), 제 3국 수출(11.6%), 저렴한 인건비(7.2%), R&D 및 기술협력(7.2%), 현지투자 우대조치(4.3%), 원자재·부품확보 용이성(1.4%) 순⁵⁾
 - (국별) 북미 3국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
 - ① 미국은 현지 내수시장, 제 3국 진출과 R&D 및 기술협력
 - ② 캐나다는 현지 내수시장, 북미 3국 역내진출과 해외고객 요구 등
 - ③ 멕시코는 북미 3국 역내진출, 제3국 진출과 저렴한 인건비 활용이 주된 목적

5) 기업별 진출형태는 판매법인(53.1%), 생산법인(28.1%), 서비스법인(18.8%)이며, 기업 규모는 대기업(50.0%), 중소기업(31.3%), 중견기업(18.8%)으로 분류됨. 산업별로 자동차(9.4%), 자동차부품(31.3%), 철강(15.6%), 기계(9.4%), ICT(9.4%), 문화콘텐츠(9.4%), 의약품(3.1%), 항공우주(6.3%), 에너지(6.3%)임.

- * 현지진출 동기는 진출국가 내수시장은 미국과 캐나다, 북미3국 역내진출은 캐나다와 멕시코, 제3국 진출은 미국과 멕시코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
- * 현지투자 우대조치와 원자재 부품확보 용이성은 미국, 저렴한 인건비는 멕시코, R&D 및 기술제휴는 미국, 해외고객 요구부응은 캐나다가 높은 편

〈표 IV-1〉 현지진출 동기

(단위 : %)

설문 응답	전체	미국	캐나다	멕시코
진출국가 내수시장	26.1	28.3	28.6	18.8
북미3국 역내진출	24.6	21.7	28.6	31.3
제3국 진출	11.6	13.0	0.0	12.5
현지투자 우대조치	4.3	6.5	0.0	0.0
원자재 부품확보 용이성	1.4	2.2	0.0	0.0
저렴한 인건비	7.2	2.2	0.0	25.0
R&D 및 기술제휴	7.2	10.9	0.0	0.0
해외고객요구 부응	17.4	15.2	42.9	12.5

주 : 기업들의 현지 진출동기에 대한 복수응답 포함

- **(USMCA영향)** 북미 3국 진출기업 중에서 **전체산업에서는 원산지 규정과 노동비용 증가에 대해 큰 영향이 없다고 답변**
 - 다만, 원산지 규정 및 노동비용 증가 등 해당규정에 대한 영향 정도가 **국별·산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 * 미국 진출기업은 동 규정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은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 진출 자동차(부품)와 철강관련 기업은 북미 산 원자재 등에 대한 원산지규정과 노동기준 강화에 따른 부담 언급
- **(대응전략)** USMCA에 따른 기업들의 전략은 **북미투자 현상유지(58.3%) 및 확대(25.0%)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
 - 그 외 미국에서는 제 3국으로 생산기지 이전, 멕시코는 현지투자 진출 축소와 북미국가 내 생산기지 이전도 고려하는 **국별도 다소 차별화된 전략이 제시**

〈표 IV-2〉 USMCA 발효에 따른 기업의 진출전략

(단위 : %)

설문 응답 내용	전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투자 확대	25.0	25.0	25.0	25.0
북미투자 현상유지	58.3	58.3	75.0	50.0
현지투자 진출 축소	5.6	4.2	0.0	12.5
북미국가 내 생산기지 이전	2.8	0.0	0.0	12.5
북미국가외 제3국 생산기지이전	5.6	8.3	0.0	0.0
한국으로 유턴 후 수출	2.8	4.2	0.0	0.0

주 : 기업들의 USMCA 발효에 따른 대응전략에 대한 복수응답 포함

2 주요 산업별 미치는 영향

가. 자동차

1) 수출에 미치는 영향

[미국]

□ 원산지 규정 강화로 인해 한국 자동차 부품 수출 감소 전망

- USMCA 하에서는 수입 자동차 부품 및 원료 수요 감소가 불가피
 - USMCA 협정에서는 순원가법(Net Cost Method)* 및 거래 가격법(Transaction Method)**를 통해 역내 부가가치 기준(RVC)을 판단하는데, 두 방법 모두 비 원산지 재료비가 중요하게 작용하여 수입산 재료에 대한 수요 감소 예정
 - * 순원가법 사용 시 $RVC = (\text{순원가} - \text{非원산지 재료비}) / \text{순원가} \times 100$
 - ** 거래 가격법 사용 시 $RVC = (\text{거래가격} - \text{非원산지 재료비}) / \text{거래가격} \times 100$
 - 자동차 핵심부품은 '23년까지 순원가법 기준 75%의 역내가치비중을 충족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역내 생산 비중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워짐

<IV-2>USMCA하 Light Vehicles 부품 역내산 인정을 위한 최소 부가가치 비중

구분	2020		2023	
	순원가법	거래가격법	순원가법	거래가격법
핵심부품	66%	76%	75%	85%
주요부품	62.5%	72.5%	70%	80%
주변부품	62%	72%	65%	75%

(자료: ustr.gov/usmca)

- 일부 중간재는 USMCA하에 과거보다 원산지 규정이 완화되어 대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
 - 플라스틱 레진의 경우 과거와 달리, 중간재 수입 후 역내에서 혼합,

분산 등의 과정만을 거쳤더라도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등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일부 수요 증가 기대**

- USMCA와 더불어 자동차 232조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발효된다면 완성차 수출도 감소 예상
 - 한국 완성차 수출은 USMCA 자체보다는 자동차 232조에 따른 고율 관세(25%) 부과 대상 국가에 포함되느냐 여부에 좌우
 - 트럼프 대통령이 USMC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주요 차량 수입 국가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우려多
 - 한국은 '19년 1월 한미 FTA개정서를 통해 자동차 232조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있으나, 자동차 232조 유예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

[캐나다]

- 강화된 역내부가가치기준, 원재료 구매조건으로 기존의 해외 공급처 축소 시 한국 기업의 對캐나다 수출에 불안요소 존재
 -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을 공급하는 기존의 우리 공급처를 일부 축소하고 현지 기업으로 대체할 가능성 존재
 - 캐나다 자동차 산업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새롭게 공급망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

[멕시코]

- 원산지규정 강화로 한국에서의 직수입은 감소, 멕시코 바이어들의 역내 소싱 강화 예상
 - USMCA는 완성차 제조업체가 북미 역내에서 생산된 부품들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되는 부품들에 대한

의존도 감소 전망

- 노동가치비율 요건 강화로 인해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기존 수입 공급선을 미국산으로 변경할 가능성
 - 멕시코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미국 근로자에 비해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임금협상력도 떨어짐
 - LVC 충족을 위해 일부 부품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하여 멕시코로 수입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다대하며, 이 경우 멕시코 진출 자동차부품기업에 위기로 작용

2) 투자에 미치는 영향

[미국]

- USMCA 타결로 자동차 산업 對美투자 증가 예상
 - 미국 자동차 업계는 생산 현지화를 위해 역내 생산설비에 투자 중
 - 주요 OEM 및 Tier1에서 미국·캐나다·멕시코 생산 설비 신규 건설, 증설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 예상
 - 현지 부품 업체의 인수를 통한 진출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수입자동차 부품 수요 감소 예상에 따라 한국 기업을 포함한 해외 자동차 및 부품 제조 기업에 대한 투자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

[캐나다]

- 미국의 캐나다 자동차 관세에 대한 위협과 불확실성이 사라지며 투자 기조는 안정될 전망
 - 캐나다와 미국은 경제는 유사성이 높고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된 특성이 있어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 투자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새로운 협정으로 인한 자동차 생산 단가의 증가가 북미 자동차 산업의 활발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
 - 새로운 규정과 최저임금 요건 등으로 북미 자동차산업의 투자 감소 예상, 투자지역이 아시아, 유럽 등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존재

[멕시코]

- USMCA 발효에 대비하여 자동차 관련 업계의 생산기지가 미국·멕시코로 다수 이전할 것으로 예상
 - 한국에서의 직수입 수요 감소 예상으로 한국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현지 투자진출 및 현지생산·조달이 강화될 전망
- 현지 부품제조업체 혹은 기진출한 한국 기업과의 합작투자, 파트너링 등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3) 현지 기업반응

[미국]

- 미국 자동차 업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USMCA 타결에 긍정적
 - USMCA로 인해 차량 생산 비용 및 소비자가격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미자동차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 전망
 - LevaData 설문조사에 응답한 자동차 기업 임원의 78%가 USMCA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변
 - * 전미자동차부품협회(OESA) 컨퍼런스에서 Mitch Bainwol 포드사의 최고정부 관계책임자는 USMCA가 미국(미시간)으로의 투자를 유인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전미제조업협회(MEMA)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음⁶⁾.
- 노동계는 USMCA가 미국 내 일자리 증가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

6) OESA Annual Conference, 2019.11

- USMCA는 북미 지역에 소재한, 시급 USD16 이상의 공장에서 생산된 부품 비중이 일정 이상이 되도록 역내 노동가치비율을 규정하고 있어 미국 내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전미자동차노조(UAW)는 USMCA로 인해 다국적기업들이 UAW 소속 노동자들을 정당하게 대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언급

□ USMCA가 북미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 또한 존재

- 세인트루이스 연준은 미국 노동자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3국의 생산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피력(2019.3)

[캐나다]

- 현지진출 한국기업은 원산지규정 충족을 위해 철강, 알루미늄 등의 부품을 지역에 따라 전략적으로 구매하는 계획이 필요한 시점으로 언급
- 현지 글로벌 자동차 부품 바이어는, USMCA 발효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언급
 - 품목에 따라 상이하지만 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현지 혹은 타국에서 구매하는 경우보다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제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 반면 기존 한국기업 외 공급기업의 대안 선택지가 없을 경우, 공급처 변화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고 전함.

[멕시코]

- 다수의 현지 자동차기업 및 Tier1/2 제조업체가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한국산 부품 수입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대신 미국 및 멕시코에 있는 공급업체로 거래선을 변경도 검토

- 이러한 움직임은 '18년 말부터 감지되어 왔으며, USMCA 발효가 가시화된 '19년 말부터 더욱 강화
- 역내 조달이 어려운 부품의 경우,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저렴한 중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등 한국산 제품의 對멕시코 실적은 부정적인 성과를 초래

나. 철강

1)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철강 관세를 피하기 위해 멕시코로 우회수출 기업 존재
 - USMCA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규정에 북미에서 제강된 (melted and poured) 철강이라는 정의를 추가
 - 다만 동 조항은 USMCA발효 후 7년 이후 발효될 예정이어서 노동 조항을 제외한 단기적 영향은 미지수
- 232조 철강 규제로 대미수출량이 제한되어, 대부분 주요 철강제품이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규제 대상품목으로 USMCA의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주장도 존재

2) 투자에 미치는 영향

- USMCA로 인해 기존 부품 생산 및 조달 계획 등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기업들은 포괄적인 투자 전략 검토가 필수
 - 강화된 노동규정으로 인해 멕시코 생산 공장 비용 상승
 - 최소 시급(16달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결사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멕시코 진출 우리기업의 인건비 상승 가능성도 제기
-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철강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부품 가격 및

생산 비용 부담 불가피

- 무리한 역내생산보다 2.5%의 미국 관세를 감수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으며, 비용감당 불가기업은 멕시코로 생산공장 이전 가능성
- 미국 생산노동자 평균시급은 22달러에 달해 멕시코 내 상대적 비용 경쟁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

3) 현지 기업반응

- 철강 산업은 건설 및 자동차 등의 주요 산업이 위축국면에 접어들며 업계 회복 기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USMCA에 비해 232조 철강규제와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제로 인한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연례 재심 등을 통한 관세 인하가 우선순위로 부상
- 글로벌 철강업계에 대한 영향 및 공급망 변경에 대한 모니터링 필수

다. 기계

1) 수출에 미치는 영향

[미국]

- 비시장국과의 FTA 체결금지에 따른 우회수출 방지 및 대중국 견제는 중국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는 품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미국산 자동차 부품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부품 제작기계 수출 기회는 확대될 가능성 높음

[캐나다]

- 기계 및 부품관련 우리기업의 對캐나다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캐나다로 수입되는 기계류에 부과되는 기본관세는 무관세이기 때문에 USMCA에 의한 수혜 품목 대상에서 제외
- 한국은 캐나다 기계류(HS Code 84류) 수입시장에서 10번째 국가이나 다른 수입국에 비해 규모는 작은 편
- * '19년 11월 기준 한국의 대 캐나다 기계 수출은 7억 9,293만 달러 규모

□ 캐나다의 사회간접자본(SOC) 정책으로 건설업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연관산업인 기계, 장비 및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수혜 가능성 존재

- 연방정부는 교통, 친환경, 주거, 교역, 지방혁신 등 5가지 중점분야의 인프라 확충에 '16년~'28년까지 C\$ 1,800억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

□ 미국 내 주택 설립의 주요 원자재인 골조용 연목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민간 분야의 건설업 성장세가 주춤할 가능성으로 기계 및 부품 수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위험성도 상존

- 캐나다를 통한 미국수출을 하는 기계류관련 우리기업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 간의 원자재 교역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 미국과 캐나다 간의 연목재 무역협정(SLA, Soft Lumber Agreement)* 만료 후 시작된 무역분쟁의 해결책이 USMCA 수정안에서 합의 불발

* 연목재 무역협정(Soft Lumber Agreement) : '06년 10월 캐나다와 미국은 연목재에 대한 지역별 수출쿼터를 정하고 관세율을 협의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16년 10월 만료됨과 동시에 높은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17년 미국은 캐나다산 연목재에 대해 최고 23.8%의 상계관세를 부과했으며, 당시 캐나다 정부는 임업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C\$ 8억 6,700만에 달하는 지원금을 제공

[멕시코]

- 한국산 정밀부품, 자동화기기, 고효율 기계장비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 전망
 - USMCA 자체로 인한 한국산 기계·부품 수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멕시코 제조업계의 생산비용 절감 및 설비투자 확대 노력에 따라 일부 정밀부품 등 최첨단 기술제품은 수요 증가 예상
- 현지 기계 산업계의 보수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 없을 듯
 - 기계 바이어는 거래선 변경에 매우 보수적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기적으로 한국산 제품 수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

2) 투자에 미치는 영향

[미국]

- 역내 생산품목에 대한 관세 혜택 등이 증가하면서 직접투자를 통한 현지 생산 및 조달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북미 내에서도 특히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 제작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관련 시설 및 기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예상
 - * 국제무역위원회는 USMCA는 북미 자동차 산업에서만 수십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함. 실제로 메르세데스 벤츠와 닛산이 원산지 규정을 맞추기 위해 대미 투자 확대 방침을 발표
- USMCA 발효에 따라 불확실성 일부 제거로 북미지역에 투자진출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캐나다]

- 우리기업은 캐나다 현지 기계류 생산법인보다는 판매법인/대리점을 통해

영업 활동에 주력, 투자 분야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

[멕시코]

- 기계관련 우리기업의 경우 현지투자보다 멕시코 내 현지 유통업체와 딜러십 구축을 통해 수출하는 경우가 많아, USMCA로 인한 투자 진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3) 현지 기업반응

[미국]

- 캐나다와 멕시코는 에너지, 광산,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망한 수출시장이며, USMCA를 통한 공급망 통합은 제품을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드는 계기 예상
 - 미국제품이 북미지역에 대한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면서 기존의 협정을 성공적으로 수정한 것을 환영

[캐나다]

- 캐나다 건설기계용 유압실린더 제조업체인 M사는 지난 20년간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제품을 조달받아왔기 때문에 USMCA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언급
 - 한국 제품이 가격경쟁력만 있다면 캐나다 소재의 기업들에 수출하는데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공급처 변경, 공장 이전 등에 관한 계획 또한 없다고 피력

[멕시코]

- USMCA 타결에 따른 멕시코 내 설비투자 효율화 및 고도화로 우수

기술을 보유한 한국제품의 수출전망은 긍정적으로 예상

- 멕시코 내 한국기계 관련 제품은 고품질, 가격경쟁력, 최첨단 기술, 정밀성, 사후관리 및 A/S서비스 등에서 높은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인식
- 원산지규정, 노동가치 규정 강화로 인해 멕시코 제조업체의 생산 비용 절감노력과 설비투자 고도화 수요는 더욱 증가 예상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한국제품의 경우 수출에 긍정적으로 평가

라. ICT

1)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협정문에 디지털무역과 지식재산권 부문이 ICT와 관련 있는데, 한·미 FTA 관련규정보다 자국 기업보호에 더 강화된 내용이 포함
- 지재권 불법복제 및 위조에 대한 법집행 규정을 강화하고 영업 비밀에 대한 보호기준을 엄격하게 설정
 - 미국진출 또는 수출하는 우리기업에서는 기존 특허나 지재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
- 미국정부가 우려하는 무역 불균형이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므로 우리 ICT 수출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공공데이터 관련 정부 정보의 접근 및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
 -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 조치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의무규정이 미국 정부의 입장인 만큼 데이터 관련 수출 기업들은 유리할 것으로 예상

2) 투자에 미치는 영향

- USMCA는 까다로운 원산지규정을 통해 미국내 신규 투자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의도
-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합병을 통해 미국 첨단 기술을 습득하고 기술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법안(외국인투자위협조사현대화법, FIRRMA)을 마련
-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자본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미국기업 쉐들러 인수를 반대
 - 쉐들러의 주력 사업인 통신반도체의 경쟁력이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에 의해 추월당할 가능성을 우려한 CFIUS의 권고를 따른 것
- USMCA가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 관련 활용 범위를 축소할 만큼 투자자들은 이와 같은 미국 정부의 입장을 염두

3) 현지 기업반응

- 구글, 아마존, 애플, MS 등 미국 IT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디지털무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정책을 글로벌 규범으로 표준화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보이면서 현지관련 기업들은 긍정적인 반응
- 반도체, 인공지능, 통신기술 등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첨단 핵심기술 분야에서 미국 IT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미국 행정부의 입장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

마. 문화·콘텐츠

1) 수출에 미치는 영향

- USMCA의 디지털 콘텐츠·저작물 등 관련 조항은 미국의 문화·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수요 확대에 의한 시장 성장으로 연결 가능

-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미국내 수요가 증가로 한국 콘텐츠의 대미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가능
- 반면, 한국 콘텐츠의 미국 수출 시, 미국에서는 USMCA에 바탕을 둔 강화된 저작권 보호 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어 한국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

2) 투자에 미치는 영향

- 미국 문화·콘텐츠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라이선싱이나 제작비 펀딩 등을 통한 투자증가가 예측, 이를 기회로 콘텐츠 수출 기회 증진 모색 가능

3) 현지 기업반응

- 현지기업들은 USMCA는 미국 문화·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며,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디지털 무역과 지적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캐나다·멕시코와 비교해 미국은 월등히 많은 콘텐츠를 갖추었으며,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강화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수혜 예상(현지영화 및 TV 프로덕션 기업 A사)
- 미국 내에서는 이미 USMCA와 유사한 성격의 관련 규제가 있어 큰 부담이 없겠으나, 캐나다·멕시코 혹은 미국과 거래하는 타 국가들에는 추가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존재

바. 의약품

1) 수출에 미치는 영향

□ USMCA 발효가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출에 단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상황

- USMCA에서 생물 의약품 부분의 핵심이었던 특허 존속 기간 연장 조항이 개정 과정을 통해 삭제되면서 3개국은 기존의 생물 의약품 정보 독점권 기간 유지 가능
 - * 생물 의약품 특허 존속 기간은 미국이 12년, 캐나다와 멕시코가 각각 8년과 5년으로 규정
- 각국의 특허 존속 기간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는 한 USMCA가 현재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 다만 ‘에버그린’ 전략을 통한 특허 기간 연장이 방지된 것은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USMCA는 ‘역내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라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며, 향후 한국 제약 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 확대 기회 예상

- 트럼프 대통령은 약값 인하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민주당 역시 처방약 가격 인하를 통한 정부 재정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시밀러 및 제네릭 시장 확대를 추진
- 장기적으로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및 제네릭 의약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동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한국 제약사의 시장 기회도 더욱 커질 전망

2) 투자에 미치는 영향

□ 지식재산권 조항을 제외한 USMCA 개정안이 미국 의약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한국 제약사의 미국 투자 진출 전략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 원산지 결정을 위한 가공공정기준 조항이 추가되면서 미국내 의약품

생산기지를 세우고, 미국 뿐 아니라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멕시코까지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3) 현지 기업반응

- 미국 바이오 기업들은 생물의약품 지식재산권 보호기간 조항 삭제와 관련, 향후 바이오의약품 개발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
 - 미국 상공회의소는 “10년간의 생물의약품 정보 보호 조항은 소비자에 추가비용 없이 혁신적인 의학 연구에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
 - 바이오기술혁신협회(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는 10년 보호기간의 삭제가 업계에 일종의 ‘오픈시즌’을 선언
 - 외국 기업이 의료 혁신 분야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 일자리, 글로벌 리더십을 공격하는 동안 미국정부가 이를 묵과할 것이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

사. 항공우주

1)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캐나다, 멕시코 기업 우선 고려 가능
 - 북미 GVC 강화로 신규 서플라이어 고려시, 캐나다와 멕시코 기업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단기 수출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캐나다, 멕시코와의 협업을 통한 신소재 및 기술 개발 등이 활발해져 우리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소재

2) 투자에 미치는 영향

□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로 우리기업의 투자기회 증가

- 미국 항공우주산업은 항공택시, 무인항공기와 같은 첨단기술 제품 및 항공기를 지속적으로 개발
- USMCA 지재권 규정은 캐나다, 멕시코가 IP 도난방지를 위해 형사, 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책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미국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에 도움
- 신규 연구개발 프로젝트 증가로 우리 기업에게도 협업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

3) 현지 기업반응

□ 인증, 레퍼런스 등의 이유로 구매처 변경 가능성 낮음(T사)

- USMCA에 따르면 추후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항공관련 부품 및 제품의 관세 증가를 최대한 제한
 - 항공기 부품 신규수입 시 우선 순위로 캐나다, 멕시코 업체가 후보군이 될 수 있다고 언급
- 항공산업은 업체 수주 선정시 10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한국기업에 USMCA의 영향이 즉시 미치지 않을 예상
- 항공기 부품은 까다로운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안전 문제로 기업의 레퍼런스를 높이 평가하므로 신규 구매처로 바로 변경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

□ 거래처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음(B사)

- 무인항공기와 같은 신규기술 개발에 있어 USMCA로 강화된 캐나다, 멕시코 정부 혹은 업체와 협업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

- 한국 정부 혹은 기업과 신규기술 개발에 있어 우선순위 국가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진행 중인 부품 수출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구매처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정부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서플라이어 신규 발굴 혹은 변경 계획은 없음.

아. 에너지

1)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우리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전망

- 한국산 석유가스 기자재에 대해 쿼터제 등의 수입규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
- 철강관, 철강재의 관련결관련 우리 기업의 주요 오일가스 기자재 수출품목은 캐나다, 멕시코 제품보다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와 유럽국가의 제품과 경쟁하므로, 우리기업의 석유가스 기자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다만 미국과 멕시코 간 무역절차가 간소화되어 제품수급이 원활해져 같은 제품군일 경우 멕시코 제품을 선호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2) 투자에 미치는 영향

□ 안정적 수요처 확보로 우리 기업 투자진출 기회

-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셰일원료를 기반으로 최근 미국의 에너지인프라 투자 활발한 상황
 - USMCA를 통해 미국 에너지 시장은 근거리에 안정적인 수요시장을 확보하여 에너지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여력 확보
- 에너지 교역 증가로 인한 신규·추가 인프라 시설 수요 증가는 우리

기업의 좋은 투자진출 기회

3) 현지 기업반응

□ 미국의 무역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B사)

- 무역거래에 소요되는 비용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는 낮은 최혜국대우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미국의 무역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준일 것
- 오일가스 기자재의 경우 가격보다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한 구매요소이므로, 기존거래처를 대체하기 위한 신규거래선을 발굴한다면, 관세나 제품가격보다는 제품 품질에 관한 이슈일 것

V **결론 및 진출전략**

1 **결론**

-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모두 이번 USMCA 발효를 긍정적으로 평가, 무역 불확실성 해소하며 경제 성장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개선된 통상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임금 상승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번 ‘신 NAFTA’ 협정은 강화된 노동규정과 최신 산업의 보호와 정체성을 반영한 지재권 등의 조항이 추가되며 합의에 도달
- USMCA 제32장 10조 예외 및 일반조항으로 비(非)시장경제 국가와의 양자 FTA 추진에 어려울 전망
 - 관련 조항의 ‘비시장경제’국가는 사실상 중국으로 인식,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없도록 ‘독소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
 - 중국이 캐나다나 멕시코와 FTA체결을 맺은 뒤 무관세나 저율관세로 수출 후 미국으로 되파는 ‘우회수출’전략을 막기 위함이라는 분석
 - * 중국은 미국·캐나다·멕시코·일본·EU 등과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
- 원산지 규정 강화로 증가한 자동차 가격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자동차에 무관세 조항에 대해서는 긍정
 - 원산지 규정 충족하지 못하는 차종 있으나 현지 조달로 대체하는 방안 등 우선 자동차 관세에 대한 위협과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에 환영하는 분위기
 - 장기적인 관점에서 USMCA가 북미 자동차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일자리 증가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

- USMCA에 대한 대응으로 진출방법 다양화 및 기술 협력개발 등을 통한 바이어와의 협력관계 강화 필요
 - 현지 생산설비 여부가 과거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USMCA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현지투자를 통한 시장 진출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
 - 네트워킹, 공동연구, M&A 등 다양한 방법에서의 진출전략 모색
 - 차세대 자동차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수요는 유지되고 있는바 핵심 부품 및 기술 개발 전략 또한 중요

2 진출전략

가. 자동차

[미국]

□ 차세대 자동차 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 진출

- USMCA 타결 및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도 불구하고, 신세대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수요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
 - * 북미 OEM 관계자 인터뷰 : 내연기관 부품은 생산 현지화 여부가 중요해진 반면 차세대 자동차 기술은 현지 거점이 없더라도 소싱 기회가 큼
- 전기차·자율주행차 핵심 부품 및 기술을 개발하여 시장 진입 전략을 세워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

구분	주요 핵심 부품 및 기술
전기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력구동) 배터리, 모터(엔진) & 감속기(변속기) ▪ (동력제어) DC-AC 인버터, 컨버터, BMS ▪ (동력충전) 완속/급속 충전기, On board Charge
자율주행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 전후방 영상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GPS, 5G(V2X), 3D Mapping ▪ (판단) 수집한 정보 처리, 통제 알고리즘, AI 솔루션(딥러닝 등) ▪ (제어) 차간거리, 차선유지, 조향 및 모터 가감속 SW

- 북미 자동차 OEM은 납품업체 선정 시 기존 납품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 미래 먹거리인 차세대 자동차 부품 수주 기회를 우선 획득한 후 품목을 다변화 하는 것 또한 하나의 진출 방법이 될 수 있음

□ 현지 투자를 통한 시장 진출

- 현지 생산설비 여부가 과거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부흥을 위해 주정부 차원에서 현지 투자를 진행하는 해외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

-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거나, 현지기업 M&A를 통한 미국 진출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
 - * 자동차 기업이 많은 미시간, 앨라배마 주에서는 주 정부, 시 정부, 카운티 단위에서 각각 투자 규모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중

[캐나다]

- 글로벌 기업과의 공동연구, M&A 등 투자진출 방법 다양화
 - USMCA 타결 시 북미지역은 RVC가 고착될 것으로 전망에 따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현지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모델 필요
 - 활성화된 산·학·연 생태계, 기술연구 분야 강점 등을 활용해 현지 기업과의 인수합병, 공동 프로젝트 진행 등 다양한 방법에서의 진출전략 모색
 - * 다양한 형태로 진출 확대중인 한국기업: (H사)친환경차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Magna International Inc. 인수합병, (S사)온타리오 주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프로젝트 제안 및 완공
- 활발한 네트워킹, 적극적 마케팅으로 기존 바이어와의 협력관계 강화
 - 원산지 규정,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철강, 알루미늄 관련 규정 강화로 캐나다 바이어들의 공급선 변경·축소가 불가피할 전망
 - 캐나다 자동차산업은 보수적인 성향이 짙어 공급업체를 새롭게 발굴하기 보다는 기존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프로젝트가 8년 이상 진행되는 자동차산업 특성상 기존 거래처와의 협력관계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 미래자동차 산업 등 캐나다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북미 RVC 조기 편입
 - 캐나다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역내가치비중 충족을 위해 아시아 조달 부품 수입을 일부 축소하고 현지 조달로 대체할 것으로 예상
 - 캐나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가격경쟁력이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

으로 개선돼 자동차 산업의 수요는 지속 증가 전망

- 강화되는 원산지 규정, 노동가치비율 등의 이점을 활용하여 북미 완성차 업체 공급구조 재편(GVC→RVC)에 진입기회 발굴

□ 캐나다 기업과의 기술 공동 연구·개발로 북미시장 선점

- 캐나다는 4차 산업 우수기술 선점을 위해 정부 지원, 우수인력 개발에 적극적이며,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 중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 분야에 전폭적으로 지원 중
- 현지 기업과의 공동 연구, AI 연구소 설립·지원 등을 통해 캐나다를 북미시장 진출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 구사
 - * 캐나다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전담기관(Innovation Canada) 신설로 정부지원을 확대
 - * 온타리오 주정부는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위해 '16년부터 10년간 공공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했으며, 자율주행차 플랫폼구축으로 지역별 특화산업 지정·육성 중

□ 현지채용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에 각별한 주의 필요

- 최저임금 규정 및 강제이행 조항 등으로 캐나다, 미국 자동차 부품의 가격경쟁력이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되며 수요 증가가 전망
- 하지만 성차별, 폭력 금지 등의 조항 또한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 필요
-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캐나다에서는 이민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해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의 검토가 필수적
 - * 캐나다는 전체 인구의 21.9%가 이민자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로 2021년까지 연 35만 명의 이민자 수용 계획을 가지고 있음.

[멕시코]

□ USMCA 원산지규정 강화에 대비한 멕시코 현지 투자 및 생산법인 설립

- 역내부가가치비율 강화로 향후 멕시코 자동차업체는 수입을 더욱 축소시킬 전망이므로, 현지에 직접 진출하여 생산하는 것이 더 유리
 - 현지 직접투자진출 시 관세 혜택뿐 아니라 GVC→RVC로의 공급구조 재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물류 및 운영비용 절감, 신속한 납기일 충족 및 원활한 사후관리 가능
- 노동규정 강화에 따른 운영리스크 대비, 현지채용 직원의 노동권 보장 및 개정 노동법 준수 필요
- 임금규정 강화, 직장 내 성차별 금지, 이민노동자 차별 금지 등 종전 보다 노동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점에 대비, 현지 노무사 자문을 통해 노무 리스크가 없도록 대비할 필요
- * 2020년부터 아웃소싱(외부하청) 사용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 바, USMCA 관련 규정 외 멕시코 정부 정책·규제 변화에도 주의가 요구됨.
- 신규 생산법인뿐 아니라 로컬기업 인수,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진출전략 모색 필요

나. 철강

- USMCA 철강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USMCA가 국제적 철강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 기존 미국 232조 철강 수입 규제에서 면제 가능 품목을 발굴하고,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로비 전략 필요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미국의 철강수입 규제에 대비하여 미국 현지 생산 및 조달 가능성 고려하고 미국 기업과의 제휴 및 합작투자 등의 장기적 솔루션 검토
- 자동차 부품 생산 비용 상승 감당 불가 기업, 한국으로 유틸을 통해 역내생산 보다 25%의 미국 최혜국대우 관세를 감수하는 방안 고려 가능

-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 관세부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수
 - * 현재 232조 자동차 관세 부과 전망 불투명하나, 트럼프 대통령, 301조 등의 다른 무역 규제 고려중인 것으로 보도(Politico)

다. 기계

- 제품 관련 조항의 적용 시점 및 적용품목 확대 가능성을 살펴봐야하며, 매년 어떻게 변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
- USMCA에서 강화된 노동기준이 향후 다른 나라 및 품목에도 확대 될 것을 대비해야 하며, 수출 품목 생산 과정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 확인
- 고효율 기계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제품과 부품 개발로 양질의 제품을 제작하여 미국 시장을 노려야 함.
- 불확실성이 축소되면서 미국 지역 투자 진출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기업은 M&A 등의 방법으로 진출 방법을 모색

라. ICT

- ICT 산업과 관련하여 미국은 USMCA에 반영된 데이터의 현지화 금지와 같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무역 규범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 거시경제정책과 환율 문제 등의 조항은 USMCA 당사국 외에도 중국, 일본 등의 국가를 겨냥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향후 추진하는 무역협상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
- ICT 관련 기업들은 미국 통상정책의 전개양상을 인지하고 미국발 조치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비할 필요

- 미국이 추진할 WTO 개혁 논의 및 디지털무역 규범화 협상에 대비하여 국내제도, 규정, 기업의 요구사항을 점검하여 우리의 입장 정립을 위한 노력이 요구

마. 의약품

□ 성장하는 바이오시밀러/복제의약품 시장 공략

- USMCA 수정안은 '역내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라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향후 미국 시장에서 정부차원의 약가 인하 노력이 지속될 전망
 - * '18년 FDA는 바이오시밀러 활성화 및 경쟁 촉진을 위한 '바이오시밀러 액션 플랜(Biosimilar Action Plan, BAP)'을 발표
- 복제 의약품은 FDA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덜 까다롭고 의약품 개발 및 허가를 위한 R&D 비용이 낮은 편
 - 특허가 만료되면 최초로 복제 의약품 허가를 받은 제품 외에 다른 복제의약품의 시장진입이 180일간 차단되며, 동 기간 복제의약품 가격이 오리지널의 94%선에서 유지되는 혜택을 향유
 - '20~'25년까지 미국에서 66개의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 FDA는 '19년에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해 더 많은 허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

□ 투자진출을 통한 북미시장 접근성 확대

- USMCA에서 원산지 결정을 위한 가공공정기준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역내에서 가공이 이루어지면 원산지로 인정되므로 미국 내 생산 기지 설립을 통해 멕시코 시장에 무관세 진출 가능
 - * 한국의 對멕시코 의약품 수출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상이하나 0~10% 관세 적용
-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미국 의약품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기업과 여러 형태의 협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미국 내 법인설립

등 투자 진출은 필수적인 절차로 볼 수 있음.

- 진출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제약시장의 경우 자금마련은 진출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미국 보건국 펀드 및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기 위해서 미국법인 설립은 더 중요

바. 항공우주

□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 우리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의 파트너십, 소싱, 협력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제품 개발 및 엔진, 스마트 캐빈 등 신규 공동 R&D 추진
- 절충교역 강화를 통한 수주물량 확대, 부품 설계기술 확보를 통한 국제공동개발*(RSP) 파트너 참여

* RSP(Risk & Revenue Sharing Partner) : 민항기 개발 시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와 부품사가 개발·투자비를 분담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

□ 선제적 투자를 통한 미래 핵심기술 확보

- 연료 소비와 무게, 원료 절감이 가능한 고효율 제품 및 친환경 기술이 가장 큰 이슈
- 탄소 나노튜브와 그래핀(Graphene)과 같은 경량신소재 사용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항공전자기술의 중요성 증가
- 항공부품 수주 확대를 위해서는 선제적 설비투자와 친환경, 경량 제품개발을 통한 시장선점 노력 요구
- 개발된 항공전자기술은 무인기 등에 우선 적용·실험하여 트랙레코드(Track Record)를 쌓아 제품신뢰도 제고 필요
- 현지 까다로운 규제, 절차에 대한 이해 및 관련인증 획득 필수

사. 에너지

□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시장 공략

- 북미지역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하여 대체조달 가능성 차단
- 기업의 수익성을 확대하고,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 시에도 그에 따른 영향 최소화 가능

□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꾸준한 사전 모니터링

- 수입규제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무역관련 유관기관 및 업종별 단체에서 해당 품목의 국별 수입물량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할 경우 최대한 조사당국의 자료 요청에 협조
 -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 상세 설명을 제출하여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이용가능 정보)에 의거한 판정을 최대한 차단

작 성 자

- 경제협력총괄팀 고희채
- 북미지역본부 김주영
- 시카고무역관 김수현
- 워싱턴무역관 이현경
- 디트로이트무역관 권선연
- 실리콘밸리무역관 김경민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달라스무역관 이성은
- 토론토무역관 원유정
- 멕시코시티무역관 공소연

Global Market Report 20-012

USMCA발효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시사점

- 발 행 인 | 권평오
- 발 행 처 | KOTRA
- 발 행 일 | 2020년 6월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 전 화 | 02-1600-7119(대표)
- 홈페이지 | www.kotra.or.kr
- 문 의 처 | 경제협력총괄팀
 (02-3640-7684)
- I S B N | 979-11-6490-433-4 (95320)



Global Market Report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